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사람은 참 이상하기도 하지. 죽어본 적도 없는데, 죽음을 아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을 타고 생성과 변형이 반복하는 격류에 휩쓸린다. 우리는 좋은 싫든 우주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 삶이라는 것에 동참한다. 이 소용돌이는 영원히 지속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언젠가 죽고, 나의 죽음으로 격류는 끝난다. 왜냐하면 온 것은 가고 시작한 것은 끝나는 게 생명 세계의 보편 원리이니가.

우리 중 태어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다. 이 태어남에 내적 필연성은 없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파먹으며 산다. 그 생명 우주에 초대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일본의 철학자 사사키 아타루는 이 명쾌한 진리를 꿰뚫어보고 “인간은 참 이상하다. 죽어본 적이 없는 데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참 이상하다. 아무것도 하려하지도, 아무것도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난다. 그리고 언젠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올해 수박 값이 너무 비싸서 많이 먹지 못했다는 낯두리를 하며 그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문득 무등산 수박이 떠올랐다. 오래전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선물을 보낸다고 구입하신 목사님 덕에 직접 본적도 있고 맛도 보았었다. 무등산 수박을 말할 것 같으면 흔한 줄무늬 하나 없이 동그스름한 이 거대한 수박은 겉모습부터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일반 수박의 두세 배에 달하는 묵직한 크기, 밋밋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오히려 원시적이고 맑은 단맛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성인 병과 당뇨에 좋다는 효능 덕분에 무등산 수박은 ‘광주의 자부심’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요즘은 당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껍질은 종양장처럼 얇게 만든 수박들이 넘쳐난다. 달고 먹기 편하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지만, 무등산 수박은 그런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다. 400년 가까이 오직 무등산 해발 300m 이상, 특정 경사지에서만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고집스러운 존재다. 나는 이러한 무등

흐느끼는 돌과 ‘먼 곳’에 대하여

어느 해 여름 서해안의 해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호주머니에 넣었다. 평범한 돌이었다. 그것을 책과 필기구가 있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배고픔도 모르고 자라지도 않는 돌을 오래 두고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읽고 쓰는 중에도 틈틈이 돌에게 눈길을 준다. 이 돌은 어디에서 왔는가? 돌을 쥐면 손에 퍼진 수용체 감각 속에서 그것이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다는 걸 알 수 있다. 돌 표면의 매끄러움이 시간의 유구한 흐름 속에서 마모와 변형을 거듭한 결과임을 증언한다.

돌은 저 먼 태고에 큰 바위에서 쪼개진 파편이었을 테다. 돌은 비바람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된 것인데, 이 돌에 윤곽과 형태를 부여한 것은 자연의 시간일 테다. 시간은 돌의 형태를 빚는 조각가다. 돌은 자연과 시간이 낳은 잔여물이다. 수동의 완고함으로 빚어진 돌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는다. 이것에서는 비와 바람, 대지의 냄새가 난다. 하지만 돌이 굴러다니는 편력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은 어떤 복잡성과 다양한 욕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돌에게는 백지 같은 순수함 밖에 없다. 이 돌을 마음이라고 하자. 돌은 아무 의지도 없는 무생물이고 죽음의 항구적 형태로 굳어진 물질이다. 비누처럼 쉬이 닦지 않는 돌은 우주의 침묵과 고요하게 조용할 뿐이다. 태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히 죽지도 않는 이 침묵의 고정물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시간의 포획 속에서 죽는 존재인 까닭이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돌이 운다. 심장도 마음도 없는 돌이 흐느끼다니! 그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날 낮엔 붉은 동백꽃이 피어났는데, 돌이 흐느끼는 밤엔 하얀 꽃잎 같은 눈이 펄펄 날렸다. 한밤중에 쓰던 걸 멈추고 돌의 흐느낌에 고요히 귀를 기울이는 오, 죽음을 보는 자다. 죽음성과 침묵의 세계에 갇힌 동물은 죽음을 보지 못한다. 오직 생각하는 존재들만 죽음을 엿본다. 돌은 죽음을 모르고 따라서 울지 못한다. 울지 못하는 돌이 흐느끼며 울다니!

바닷가에서 주위를 돌을 책상에 올려두고 바라본다. 모든 생물이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세계의 자명함이다. 마치 생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는 운명처럼 세계를 만난다. 산 자들의 꿈과 갈망의 푸른 힘으로 꽃이 피고 지며 계절은 순환한다.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과 세상과 작별하는 사람은 동일한 존재다. 죽는 사람은 죽음 그 자체로 돌아간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노래한다. “죽음에 이른 사람이 보는 건 이미 죽음이 아니라 ‘먼 곳’이다.” (두이노의 비가-제8 비가) 나는 책상에 놓인 말하지 않는 돌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돌의 지속되는 침묵이 저토록 송고할 리는 없을 테다.

짧고 비천하지만 찬란한 생명을 가진 개체 중 하나인 나도 언젠가 죽음의 빛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자로 다시 태어나 살 수 있을까?

무등산 수박, 400년의 우직함이 전하는 메시지

산 수박의 우직함 속에서 기독교인의 신앙과 교회의 역사를 발견하곤 한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는 과연 무등산 수박처럼 고유한 향과 맛을 내고 있을까? 우리는 모두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무등산 수박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심으면 그 고유한 특성을 잃듯,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같다고 말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13)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의 고유한 ‘맛’과 ‘향’은 바로 사랑과 겸손,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 고유함을 지킬 힘을 가지고 있다.

무등산 수박은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고유한 맛을 지켜왔다. 이는 마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이어온 기독교의 역사와 닮아 있다. 때로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때로는 이단의 공격 속에서, 때로는 세속화의 유혹 속에서 기독교는 그 본질을 지키려 애써왔다.

세상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쉬운 길을 택하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그 변화가 본질을 잃는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마치 욕지 속의 섬처럼 고립되어 시대착오적인 모습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실천과 이웃 섬김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더욱 깊이 추구하며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종교 공동체가 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며, 공의를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에 선했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무등산 수박이 희귀성과 뛰어난 품질로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듯,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종교 공동체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긍정적인 가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작은 선행과 진실한 삶은 마치 무등산 수박의 은은한 향처럼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사랑과 섬김, 나눔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 무등산 수박이 교유의 맛과 향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듯, 우리의 작은 섬김과 진실한 삶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물과 함께 여는 상생의 길, 지역의 재도약

복지와 문화 공간을 일구는 기반이 됐다. 이에 물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수자원을 지역의 경쟁력과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주요 무대가 바로 담 주변 지역이다.

그 현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분부는 물이라는 공공 자원을 매개로 주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회춘식 역시 지역소멸과 고령화라는 문제를 고민하며 공동체의 끈을 다시 단단히 잇기 위한 실천 중 하나였다.

회춘식과 함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어가고 있다. 주암댐의 에코 마켓은 대표 활동 중 하나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은 농산물 공동 생산·판매 활동을 펼치며 소득을 키운다. 또한 레스토랑, 베이커리, 팹캐اف 등을 갖춘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장흥댐에는 ‘꼬까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증 치매 노인에게 GPS가 장착된 신발을 보급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실종 예방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경찰청장상을 받으며 사회적 관심도 끌었다. 이는 작은 실천이 고령화 지역의 돌봄 인력과 시설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순간이었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푸드트럭 방울이 밥차, 장흥댐 생태미술관 조성 같은 사업들이 있다. 크고 화려한 사업은 아니지만 한 기 식사를 해결하고 오래된 공간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 넣는 행동들이 모인다면 지역에 생기가 돌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의 노력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속가능한 내일

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째, 미래 세대와의 동행이다. 지역이 지속하려면 청년이 있어야 한다. 청년이 머물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의 무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처음으로 ‘영·섬유역 담 주변 지역 청소년 숲속 공모전’을 열었다. 이들 영상은 한국수자원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지 불과 2주 만에 3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공감과 친밀감은 지역과 청년을 잇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게 된다면 지역의 내일은 젊은 기운이 가득해질 것이다.

둘째, 온라인커머스 도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온라인 커머스를 도입하는 것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세상과 다시 연결하는 생존 전략이다. 영·섬유역분부는 전라남도 대표 공공형 온라인쇼핑몰인 ‘남도장터’와 협업을 담 주변 지역 농가의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할인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도 높였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판매도 진행하며 남도의 맛과 담 주변 농가의 이야기를 함께 전했다. 지난 6월 19일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으로 불과 몇 달 만에 누적 매출 6000만원을 올렸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한 우물을 끼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다. 물은 늘 삶을 이어주는 중심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물을 중심에 두고 지역의 삶과 맥을 유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 함께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그늘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은 열린다. 그 길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언제나 동행하겠다.

社說

대한민국 복지표준 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민선 8기 광주시의 대표적인 복지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한민국 복지표준이 됐다. 정부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모델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광주를 방문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직접 체험하고 광주의 경험을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나이·소득·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광주사람이면 전화 한 통으로 생활·의료·건강 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가사지원·방문목욕·병원동행·방문맞춤운동·방역 방충 등 개별로 흩어져 있던 기존 서비스들을 동사무소 복지담당과 간호직 공무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한꺼번에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에만 8595명에게 1만2889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특

히 적극적인 취약계층 발굴과 보살핌 덕분에 다른 광역시는 고독사가 6.5% 늘었지만 광주는 4.5% 줄었음 정도로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병원 가기 힘든 고령자 입장에서 매일 의사가 집에 방문해 진료와 약을 챙겨주고 동행자가 목욕부터 운동, 식사지원에 방역까지 해주니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겠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지난 7월에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 국제인권회의에서 모범사례로 발표할 정도로 ‘K복지’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

신안의 햇빛 염금, 강진의 반값 여행 등 최근 광주·전남에서 시작해 전국 시책으로 채택된 정책이 늘고 있어 반가운 일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한민국의 복지표준으로 자리잡고 지구촌에 K복지를 전파할 정도로 위상을 갖게 돼 자랑스럽다. 더 많은 지역 정책이 이런 길을 가길 기원한다.

광주에서 쓴 인권·평화의 메시지 전 세계에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8일 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한다. ‘할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어제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부터 국내외 선수단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대회 분위기를 달궜다.

광주 대회는 1985년 서울, 2009년 울산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로 역대 최대 규모다. 22일부터 28일까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도 이어지는데 한 도시에서 세계선수권과 장애인선수권 대회가 동시에 열리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토너먼트와 예선 라운드는 주일동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리지만 결승전은 옛 전남도청앞 광장인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는데 의미가 크다. 민주·인권·평화로 상징되는 ‘광주정신’을 전 세계에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6개국 731명의 공사들이 펼치는 경기

는 그 자체로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겠지만 파리올림픽 하계의 선수단차드의 이스마엘 마다예가 전하는 감동은 새로운 볼거리다.

마다예는 아프리카 최빈국 차드 출신으로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김우진 선수와 64강전에서 만났는데 일상복 차림에 보충비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감동을 안긴바 있다. 광주대회 조직위는 마다예를 포함해 9개국 13명의 선수를 공식개발원조(ODA)로 초청해 장비와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광주정신을 실천한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광주정신 뿐만 아니라 맛과 시민들의 친절, 남도문화 등 광주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다. 성공 개최 여부에 따라 국제도시 광주의 기능자 역할을 할 것이다. 대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는 물론 시민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

無等鼓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저는 아버지에게 이어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평소에도 이 상임고문은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민주당 평당원으로 활동했던 일화를 주변에 들려주고는 했다.

정청래 의원을 대표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서도 ‘당원의 힘’은 돋보였다. 정 대표는 박찬대 의원에 대의원 투표에서 6% 가량 뒤졌지만 국민여론했고 특히 권리당원 투표에선 더블 스코어 차 이로 앞서 당선됐다. 전

당대회에서 대다수 현역 국회의원은 박 의원을 지지했지만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정 의원의 인기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과거 국회의원이 지역위원회 조직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끌고 갔던 전당대회 관행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각종 경선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일반 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적극적인 투표에 나섰다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광주·전남 각 지역위원회 당원 중 30~40% 가량은 10년 이상 된

장기 당원이지만 이들의 경선 참여는 저조하다. 이 때문에 이들 중 5% 가량만 경선에 참여해도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현역 의원의 조직동원’이 ‘당원의 결속’을 이기지 못했고 이는 향후 민주당 경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신규당원은 30만명에 달하면서 당원의 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평당원 시대’가 열린면서 민주당은 평당원 중에서 한 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후보 12명에 광주·전남에서는 차승세 광주노무현시민학교장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6일 배심원 심사(경선 공론회)로 본선 진출자를 3~5명으로 압축한 뒤 9일 경선 후보들의 토론과 합동연설회를 한다. 전당원 투표는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심장이자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이 ‘민주당의 새로운 심장’이 될까 할 축제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기고



명세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경영처장

지난 6월 주암댐 주변 지역인 보성군 복내 천연염색공예관에서는 특별한 회춘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주암댐 인근 4개 사·군에 거주하는 60년 이상 부부 14쌍과 가족,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곱게 단장한 노부부의 성혼 선언, 자녀의 영상 편지, 사랑 고백 토크쇼가 어우러져 코끝 찡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소멸과 고령화라는 그늘 속에서 공동체의 온기를 되살리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소멸 위기 지역의 재도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침체, 교육과 문화 격차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최근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 재도약을 123대 국정과제로 삼고 국민 임명식에 마을공동체와 지역 특화기업을 초대한 것은 지역의 재도약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임을 보여준 상징적 메시지였다.

지역의 재도약은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중요한 과제다. 오늘날 환경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며 풍부한 수자원은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생활